



## 슬그머니 커지는 펀드

### 1. 국내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지속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내주식펀드는 아주 오랜 침체기를 겪었음
- ESG, 테마펀드, 액티브ETF 등이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을 주면서, 국내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재개
- 해외주식 직접 투자의 경험이 쌓이면서, 해외주식펀드는 자금 유입이 1년 가까이 지속

### 2. 라이프싸이클펀드(TDF포함) 운용규모 10조원 돌파

-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 라이프싸이클펀드(TDF포함)의 운용규모는 2019년 2.5조원에서 현재 10조원으로 크게 증가
- TDF 운용경험이 쌓이면서, TDF가 다양하게 발전해가고 있음

### 3. 자산배분 효과 기대하는 EMP

- EMP는 자산의 50%를 ETF로 운용.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EMP 투자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러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EMP의 강점 부각
- ETF와 분산효과 등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금융상품은 꾸준히 성장

## 1. 국내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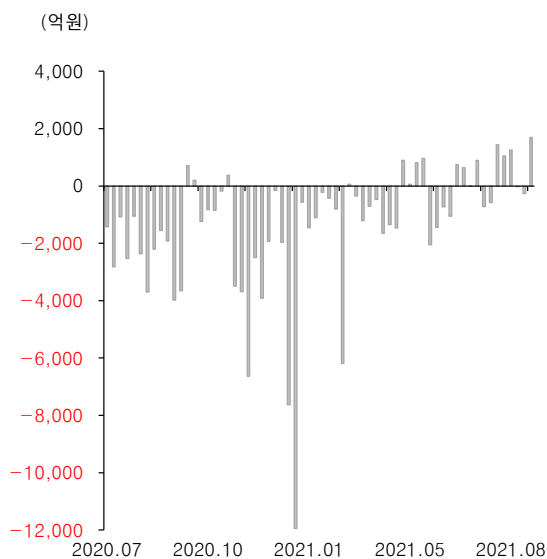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주식펀드는 아주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2015년 전후로는 배당주펀드·중소형주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지만, 국내주식형펀드 전체로는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

2020년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직접투자가 늘어났고, 해외주식의 투자 경험은 해외주식펀드 투자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내주식(ETF제외)펀드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익실현 증가로 운용 규모는 줄어들었다.

국내주식펀드(ETF제외)의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이며, ESG·테마펀드, 액티브ETF 등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주식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에 대한 믿음을 주면서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것처럼,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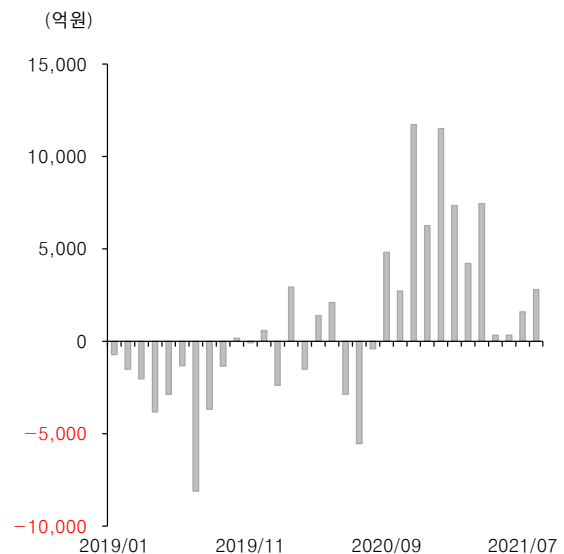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도 오랜 기간 자금 유출이 이어졌으나, 작년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가 해외주식펀드 투자로 이어졌다. 국내주식펀드의 투자 분위기도 해외주식펀드처럼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차트1]** 국내주식(ETF제외)펀드는 하반기부터 자금 유입 추세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해외주식펀드(ETF 포함)는 작년 9월부터 자금유입으로 전환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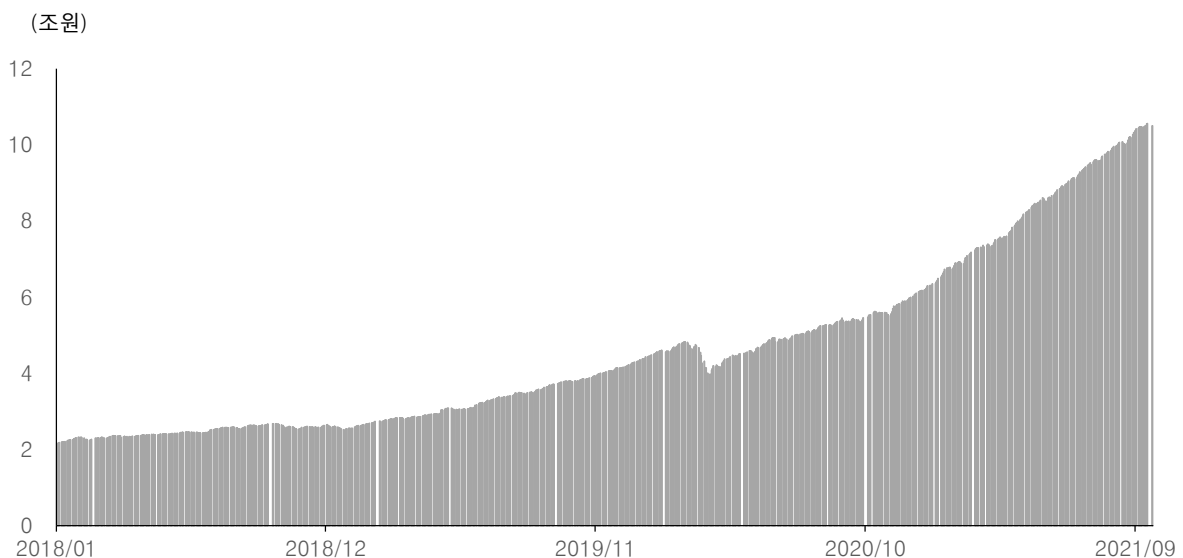
## 2. 라이프사이클펀드 운용 규모 10조원 돌파

라이프사이클펀드(TDF 포함)의 순자산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다. 은퇴자산 관련 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이 초장기이기 때문에, 10~20년간은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라이프사이클펀드(TDF 포함)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연초 이후 2.7조원의 설정액이 늘어났다. 2019년말 순자산이 2.6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이 채 안 되어서 4배 정도 성장하였다. 국내주식 액티브유형의 순자산이 21.3조원인 것을 감안해보면, 라이프사이클펀드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수단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라이프사이클펀드의 3년 수익률과 1년 수익률은 각각 26.8%와 16.6%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은 글로벌 증시의 강세로 수익률이 높아졌으나, 향후 투자 수익률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은퇴자산 운용을 위한 TDF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TDF의 운용경험이 쌓이면서, 운용사별로 차별화된 TDF를 내놓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이다

[차트3] 라이프사이클펀드 운용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섬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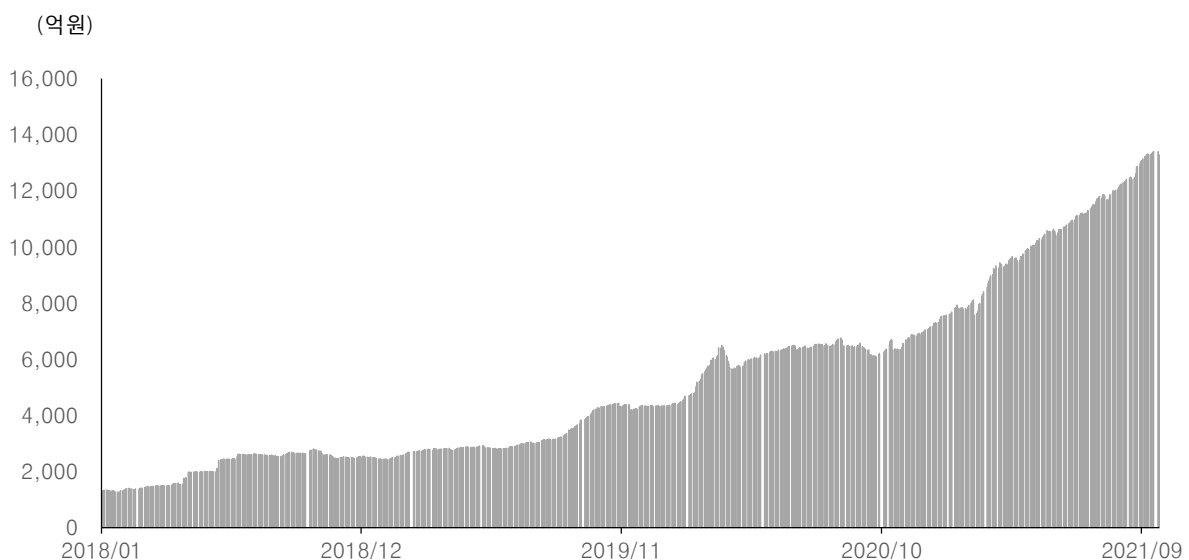
### 3. 자산배분 효과 기대하는 EMP

EMP(ETF Managed Portfolio)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ETF로 다양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EMP 유형의 3년 수익률과 1년 수익률은 각각 15.8%와 14.4%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러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EMP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저금리로 위험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투자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국내의 주요 EMP는 'IBK플레인바닐라RMP'(5047억원), "KTB글로벌멀티에셋인컴EMP'(2438억원),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1062억원) 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자산군을 활용한 EMP 뿐만 아니라, IT·4차산업 등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EMP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펀드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식상해질 정도이다. 하지만 펀드 시장을 잘 들여다 보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은퇴자산, 분산투자, 성장성 등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자금 유입이 이어져, 어느새 의미 있는 운용 규모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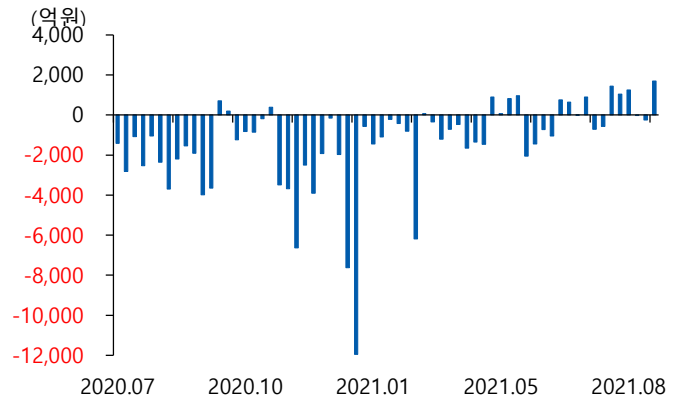
[차트4] EMP 순자산 규모는 1.3조원으로, 2021년 5481억원 증가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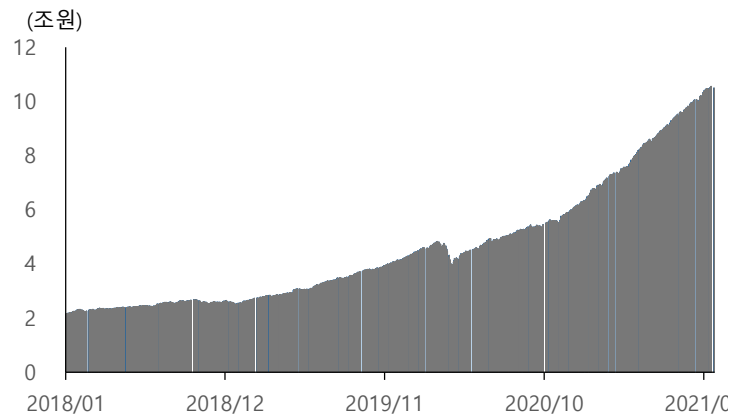
## Key Chart

국내주식(ETF제외)펀드는 하반기  
부터 자금 유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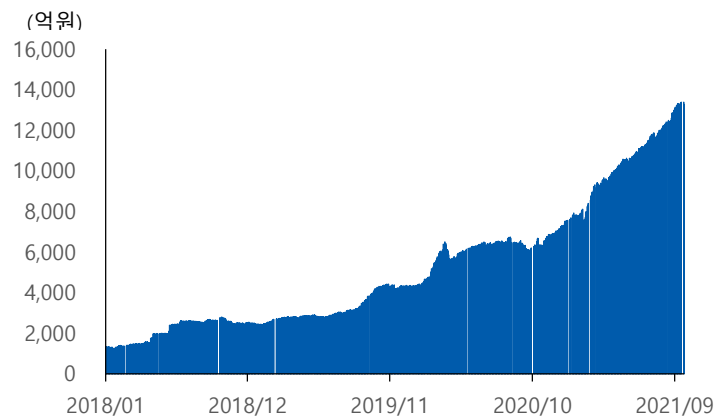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라이프싸이클(TDF 포함)펀드 규  
모는 10조원을 넘어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라이프싸이클(TDF 포함)펀드 규  
모는 10조원을 넘어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